

의학칼럼

뇌경색과 골든타임



이응준

서산의료원 공공임상교수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세계 사망원인 2위로, 뇌졸중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였고 시술로 추가적인 예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맥으로 접근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도 있다.

뇌경색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법에 제한이 생길 뿐 만 아니라,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뇌경색은 사망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생존 하더라도 후유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간병으로 인하여 가족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그러나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10년째 30%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진료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후유증이 심한 환자들을 바라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사설

교원·학생 안전 위협하는 교원 가정방문 폐지·이관해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크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최근 강원교육청이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원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이들은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교원에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 떠넘기는 한 교원은 신고·협박당하고 그 사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것이며 교원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며 특히 학부모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악성 민원, 보복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미취학, 미인정 결석 등으로 나갔다가 아무도 못 만나거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교원들은 말한다.

또 교원들만 나갔다가 학생은 보지도 못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협박당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학부모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험한 꼴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경찰, 복지공무원 등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만 가가는 가정방문이 강제력이 없어 보호자나 학생 대면 확인조차 못하고 시간만 끄는 사이 정작 학생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는 통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 확인은 학교가 신고 또는 요청하면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인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할 때다.

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교사 정직 처분 취소 판결

교실 몰래 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관내 A초 B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증거 불인정' 취지로 20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정직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교육계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 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 붕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 오히려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천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제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심지어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 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고 한다.

교청은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사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 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TN 논단

신비의 땅 제주를 기적의 땅으로



가갑순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인 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태평양으로 넓혀 준 하늘이 준 고귀한 선물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주도를 흥풍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에서 출발했으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제정한 하 있으나 지금까지의 성적은 낙제점에 이르고 있다.

외국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제주도 상품구매시 세금 면제, 항공자유화제도 허용 등 미미 상태다.

공항 이전증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다.

제주도의 60분의 면적, 제주도 인구 57만과 비슷한 마카오의 한 해 관광객이 3000만 명인 데 반해 작년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78만명에 불과

했다. 신비의 땅 제주도를 기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과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의 기적을 위해 도민 의식의 큰 변화가 급선무이며 자손 후대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제주도의 기적 창출에 동참하지 않고는 현재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늘이 준 큰 선물,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관광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

우리 힘을 합쳐 기적의 땅을 일구어 보자. (이 글은 2011년 7월 20일 작성한 것임)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임에 신비와 자부심을 갖게 됨은 우리 사업체가 있기 때문만은 아닐 듯싶다. 제주도는 서울 면적의 3배 이상이며 4면이 바다

만물창고

불리불기(不離不棄)



한성진

교육타임즈 편집국장

는데 당시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 향량한 별관을 예니지 숲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막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한 한 살 배기 아들과 자상한 남편이 있는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삶이었고, 매일 매일 행복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운명이 그녀를 지독히도 질투했는지 그녀의 몸 속에 아무도 모르게 독한 암 세포를 심어 놓았는지 그녀가 몸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이 내려졌고 온 몸에 전이된 화학암 세포 때문에 체력은 급속히 약해졌고 곧 이어 뼈가 녹아 내리는 고통이 이어졌다. '암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도 해 보고, 하늘을 향해 절규도 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에 수 놓아진 '불리불기(不離不棄, 헤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글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비록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자'고 다짐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 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선택의 권리'이다.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

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글 하나에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14억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녀를 응원하였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기도를 뒤로 하고 위지안은 2011년 4월 19일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위지안이 하늘 호수로 떠난 후에 그녀의 글들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만 현재도 베스트셀러다.

그 책에서 주려 내었던 문장 몇 가지를 되뇌어 본다.

▲ "사람은 갑작스럽게 큰 고통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된다." ▲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 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 "우리는 삶의 최후 순간까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고개만 돌려 보아도 바로 옆에, 그리고 바로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빛을 지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갈아야 할 빛이다." ▲ "자기 삶의 궤적

많은 정보가 SNS를 타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내용들이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우리 CTN신문사와 교육타임즈 신문 편집국에도 하루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동으로 다가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속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글을 찾아 1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특의 내용이 번역 떠올라 이번 만물창고 내용으로 선정 올려본다. 위지안이라는 중국 여인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에서 유학한 뒤 서른 살의 나이로 세계 100대 대학 중의 하나인 상하이 복단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

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손톱 만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리라." ▲ "나는 그동안 불투명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많은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다. 지장 잡혔던 그 무수한 '오늘' 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 "인생이란?, 늘 이를 악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느터라도 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걷는 사람에게 지름길을 열어 주는지도 모른다." ▲ "하늘은 매일 같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 축복을 못 받고 있었다. 선물을 받으려면 두 손을 펼쳐야 하는데 내 손은 늘 뭉쳐있고 있었으니까..." ▲ "어쩌면 병이란, 우리가 평생 살아도 깨닫지 못할 그런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한 가장 극단적

인 처방일지도 모른다." ▲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로 이루어져 있다." ▲ "삶이라는 길에는 무수한 아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그 시련들은 삶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만 하는 것들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람마다 각각의 할 당량에 차이가 있을 뿐, 눈앞의 어려움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한사코 포기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 시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그것을 온전히 치러야 할 삶의 대가로 받아 들인다면, 시련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 된다. 나는 오늘도 아프고 내일로 아플 것이다."

잔잔한 감동으로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기도 올려본다.

Advertisement for CTN (Education Times)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logo. Includes text like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D01378' and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